

### '배움과 삶 잇는 탐구' ... 전주여고, '고시 외 과목' 개발

# 탐구 중심 교육과정 새 기준 마련

전북교육감 심의인정  
교과서 심사 최종 합격  
학생 질문 바탕으로  
탐색부터 성찰에 이르는  
전 과정 설계토록 구성

전주여자고등학교(교장 이영숙)는 고시 외 과목 '배움과 삶 잇는 탐구'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심의 인정 교과서 심사에서 최종 합격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생 주도 탐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한 이 교과서를 통해 일반 고에서도 깊이 있는 탐구 중심 교육 과정을 실현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고시 외 과목'이란 국가와 시도교육청에서 필수 지정된 고시 과목 외에 학교가 교육과정 자율권에 따라 새롭게 편성하는 과목을 말한다. 고시 외 과목을 통해 학교와 지역의 개별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학생의 흥미와 진로에 기반한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번에 인정한 교과서는 학생이 삶의 맥락에서 출발한 질문을 바탕으로 탐색·표현·실천·성찰에 이르는 전 과정을 스스로 설계하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으로, 학생이 자료를 선별·비판하고 주장-근거-정당화 구조로 사고를 정리하며 탐구 결과를 실천으로 연결하는 학습 경험을



전주여자고등학교가 개발한 고시 외 과목 '배움과 삶 잇는 탐구'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심의 인정 교과서 심사에서 최종 합격했다. 사진은 전주여고 이영숙 교장, 장은희 수석교사가 이끄는 집필진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강조하고 있다.

특히 배움의 목적을 성찰하고 의미 있는 질문을 스스로 생성하도록 하는 점, 자료 탐색과 분석을 통해 핵심 개념과 쟁점을 구조화하는 점, 탐구적 글쓰기와 논리적 말하기를 통해 사고를 명료하게 표현하도록 하는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탐구 결과를 지역사회와 일상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 역

시 교과서의 핵심 요소로 제시됐으며, 이는 지속 가능한 실천과 성찰을 통해 배움이 삶을 변화시키는 힘임을 경험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집필진 대표인 장은희 수석교사는 "이번 인정 심사 합격은 전주여고가 추구해 온 학생 주도 탐구 교육이 공식적으로 그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의미"라며 "이 과목을 통

해 학생들이 삶에서 출발한 질문을 실제 변화로 연결하는 경험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여고는 앞으로 이 과목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형 공립고2.0 협약기관들과 긴밀한 코디칭 체계를 구축하고, 대학 연구진 및 지역 기관 전문가와 함께 수업을 공동 설계·운영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 우주 쓰레기 포획기술 연구 '우수'

전북대 조해성 교수팀, 한국진동공학회 우수논문상  
우주 잔해물 제거 기술, 국가 우주 역량 강화 핵심전망

전북대학교 조해성 교수 연구팀(공과대학 항공우주공학과)이 우주 쓰레기 증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기술을 제안해 한국소음진동공학회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수상 논문은 한국소음진동공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그물 기반 우주 물체 포획 기술을 위한 사출 메커니즘 설계'로, 그물망을 활용해 우주 물체를 포획하는 기술의 사출 장치를 설계·제작하고 이를 실험적으로 검증한 연구다.

연구팀은 우주 개발이 가속화되면서 급증하는 우주 쓰레기 문제가 인공위성·우주선 운용의 위협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능동형 우주 잔해물 제거(Active Debris Removal, ADR)에 적용 가능한 실질적 기술을 제시했다.

직접 제작한 사출 장치를 시험

하며 메커니즘의 신뢰성과 성능을 확인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조해성 교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지속 가능한 우주 환경 조성은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연구가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의 실질적 해법이 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학원생들의 헌신적인 연구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라며 "향후 대한민국의 우주 안보와 미래 우주 기술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후속 연구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또한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으로 상징되는 국내 우주 개발의 성장 속도에 발맞춰 우주 잔해물 제거 기술이 국가 우주 역량 강화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창조미래 1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학교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제공)

### 내년 학생 마약 예방·조기대응 강화

전북교육청, 전문가 협의체 회의 열고 협력 방안 도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17일 창조미래 1회의실에서 2025년 하반기 학교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

학교 마약 예방교육 전문가 협의체 위원 및 업무담당자들이 함께한 이날 회의는 2025년 학생 마약류 예방교육 사업 실행을 공유하고, 마약류에 대한 학생 인식 개선 및 초기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올 한해 마약류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 강사 지원, 교육 자료 개발, 컨설팅 시행, 교직원 역량강화 연수 등을 지원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전북 지역 청소년의 마약류 접근 및 단속·상담 실태를 공유하며, 청소년 마약 문제는 조기

발견과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학교에서의 예방교육 중요성과 의식 징후 인지, 초기 상담 단계에서의 전문가 연계가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2026년에는 기관별 역할을 바탕으로 학교·유관기관 간 협력 체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은희 학교보건담당 장학관은 "이번 협의체 회의는 학생 마약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생 마약류 접근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중등교원 행정업무 경감... 학적업무 도움자료 개발

입학·전출·면제·편입학 등 학적 전반 절차·사례 담아  
관련 법적 근거·용어 정의 등 담아... 실무자 즉시 활용 가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중·고등학교 학적 업무 도움자료를 제작·배포했다고 17일 밝혔다.

학적 담당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전문성 강화를 돕기 위해 제작된 이 자료는 △입학 △전입학 및 전출 △면제 및 유예 △재취학 및 편입학 △사출·진급·졸업 등 학적 전반의 절차와 사례를 담았다.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등 관련 규

정을 토대로 체계적으로 작성했으며, 중학교용과 고등학교용으로 제작됐다.

특히 각 장에는 관련 법적 근거, 용어의 정의 및 핵심 업무 처리 절차, Q&A, 관련 서식 등을 담아 실무자가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 자료가 교사들이 학적 업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전북교육연수원, 6급 핵심인재 양성 8기 공동정책연구 세미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7일 연수원 연화관에서 6급 핵심인재 양성 8기 공동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6개월간 운영된 6급 핵심인재양성 과정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교육연수원(원장 민완성)은 17일 연수원 연화관에서 6급 핵심인재 양성 8기 공동정책연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6개월간 운영된 6급 핵심인재양성 과정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세미나에서는 △주 4.5일제 대응 전

김재훈 기자

### "학교안전 이상무" ... 안전 인프라 선제 구축

전북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안전지표 전 항목서 계획 대비 초과실적 달성  
내진보강 확보율 76.7% · 학교시설 석면 해체 99.99% · 스프링클러 설치율 80% 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전국 시도교육청 종합평가 안전지표 전 항목에서 계획 대비 초과 실적을 달성했다.

17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올 12월 10일 기준 △내진보강 확보율 76.7% △학교시설 석면 해체·제거율 99.99% △드라이버트 제거율 70.1% △샌드위치패널 제거율 88.2% △스프링클러 설치율 80% △안전인증 취득율 54.7%로 집계됐다.

이는 교육시설 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내진보강사업, 석면 해체·제거, 교육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인증제 운영 화재취약시설개

선사업 등 교육시설 안전 개선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 결과다.

특히 화재 안전 강화를 위해 드라이버트·샌드위치패널 제거와 스프링클러 설치 확대를 지속 추진 중이다. 또 석면 해체·제거율은 전국 1위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전체 학교시설 연면적 505만㎡ 중 석면 면적은 302㎡(1개교)로 석면 제거율이 99.99%에 달했다.

이로써 교육부가 제시한 2027학년도보다 2년 앞선 을 겨울방학이면 학교 시설 석면 제로화를 달성하게 됐다. 전북교육청은 석면 제로화 달성에

이어 △드라이버트·샌드위치패널 제거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취약시설 개선사업 2026년 완료 △내진보강사업 2029년 완료를 목표로 안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홍일 시설과장은 "최근 재난·재해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학생과 교직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안전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선제적 학교 안전 인프라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 호원대, 대표 커리어 프로그램 'Career Plan 100' 우수학생 인증서 수여

36명 인증서 수여받아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 커리어설계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총장실에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대표 커리어 프로그램 'Career Plan 100'의 성과를 기념하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Career Plan 100'은 재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심층적으로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적 커리어 개발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진로 정보 제공을 넘어 학생들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올 해 총 367명의 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231명이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고 36명이 인증서를 수여받았다. 참여 학생들은 체계적인 대학생활 계획표 작성을 통해 학년별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실천해 나가며 실질적인 커리어 개발 역량을 강화했다.



호원대학교 커리어설계지원센터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총장실에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대표 커리어 프로그램 'Career Plan 100'의 성과를 기념하며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번 수여식에서 최고 득점자로 선정된 김모(간호학과 1학년) 학생은 "다양한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수상을 통해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고 제 진로를 성실히 개척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영문 커리어설계지원센터장은 "Career Plan 100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성

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진로 지도 프로그램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생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커리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취업 지원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성 총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학업과 실무 역량을 균형 있게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와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산=김만호 기자



###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최고경영자과정 9기 수료식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와 (사)벤처기업협회 전북지회가 공동 운영하는 '전북중소벤처리더스포럼 아카데미 최고경영자과정' 제9기 수료식이 지난 16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열렸다.

9기 과정은 AI 시대의 흐름과 혁신 전략,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지난 8월 개강해 1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진행됐다. 실무 중심 특강과 네트워킹 프로그램이 병행되며 교육생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냈다.

수료식에 이어 같은 장소에서 2025 전북 중소·벤처기업인의 날' 본 행사도 열리며 지역 기업인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교류와 협력을 이어갔다. /김재훈 기자

### 군산대 SW중심대학사업단

남원소통혁신의 날 표창 수상

국립군산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은 최근 남원시청에서 열린 2025 소통혁신의 날' 행사에서 소프트웨어학과 이석훈 교수와 산학협력 교육중점최승호 교수가 지역 SW 저변 확대와 미래 기술 양성에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수상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SW중심대학사업의 성과 확산 활동과 남원시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와 산업계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권산=김만호 기자